

‘대담한 포용력’ 르세라핌, 버티고 살아남아 귀한 존재가 됩니다

“남의 평가에 휘둘릴 필요 없다... 용기 내서 나아가보자”
타이틀곡에 ‘나일 로저스’ 등 유명 뮤지션들 대거 참여

한일에서 큰 인기를 누린 프로젝트 그룹 ‘아이즈원’ 출신 사쿠라와 김채원이 그룹 ‘방탄소년단’(BTS)을 발굴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사명을 하이브로 바꾸고 처음 내놓는 걸그룹 멤버로 합류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부터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 “안전한 율리에서 성공을 따놓은 당상”이라는 반응부터 “오히려 부담이 클 거 같다”는 우려까지.

대중의 예상을 뛰어넘고 싶은 김채원, 일본 걸그룹 HKT48로 데뷔해 AKB48 활동을 함께한 뒤 아이즈원 멤버로 재데뷔했고 또 르세라핌으로 세 번째 데뷔를 한 사쿠라, 한때 가수의 꿈을 접어야 했던 허윤진, 한 때 발레리나를 꿈꾸며 K팝 업계 시스템이 낯설기만 했던 일본인 멤버 카즈하, 마지막에 팀에 합류한 흥은채까지. 다섯 멤버는 각각의 배경에서 오는 오해와 편견과 부담을 뚫고 여기까지 왔다.

르세라핌이 데뷔 1주년을 하루 앞둔 1일 오후 6시 발매한 첫 번째 정규 앨범 ‘언포기븐(UNFORGIVEN)’의 의미가 남다른 이유다. 최고가 되겠다는 욕망을 가감 없이 드러낸 데뷔 앨범 ‘피어리스(FEARLESS)’, 시련을 마주할수록 더 단단해지겠다는 결심한 미니 2집 ‘안티프래질(ANTIFRAGILE)’에 이어 이번 음반에선 타인의 평가에 개의치 않고 르세라핌만의 길을 개척하겠다는 각오를 담았다.

허윤진은 이날 오후 서울 광진구 예스24 라이브홀에서 열린 쇼케이스에서 “앞선 미니 앨범들에선 르세라핌의 당당한 모습을 많이 보여드렸다면, 이번엔 좀 더 입체적인 모습을 보여드리려 노력했다”고 말했다.

타이틀곡 ‘언포기븐’은 힙합과 펑크 리듬이 어우러졌다. 특히 국내에서는 ‘마카로니 웨스턴’(이탈리아에서 만든 서부영화)의 대표작으로 ‘석양의 무법자’로 알려진 영화 ‘더 굿, 더 배드 앤드 더 어글리(The Good, the Bad and the Ugly)’(1967)의 메인 테마 OST가 샘플링됐다. 샘플링은 프로듀서를 맡은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아이디어다. 해당 곡은 이탈리아 출신의 ‘영화음악 거장’ 엔니오 모리코네(Ennio Morricone·1928~2020)가 작업했다.

르세라핌의 트랙을 들은 엔니오 모리코네의 아들 지오바니 모리코네(Giovanni Morricone)는 흔쾌히 샘플링을 허락했다. 덕분에 르세라핌만의 길을 개척한다는 곡의 메시지가 더 효과적으로 표현될 수 있었다는 것이 르세라핌과 방시혁 의장의 판단이다.

또 이 곡엔 디스코 시대 최고 밴드 ‘시크(Chic)’의 프로듀서 겸 기타리스트로 유명한 미국 거장 뮤지션 나일 로저스가 기타 피쳐링으로 힘을 실었다. 로저스는 참여하는 곡마다 평기한 그루브를 결정짓는 연주의 달인이다. 데이비드 보위(David Bowie), 마돈나(Madonna), 비욘세(Beyonce) 등 당대 최고의 뮤지션과 호흡을 맞췄다. 특히 다프트 펑크(Daft Funk)의 메가 히트곡 ‘겟 러키(Get Lucky)’를 패럴 윌리엄스와 함께 작업했다.

허윤진은 “어렸을 때 들었던 음악을 만든 신 분이라 처음 (성함) 들었을 때 너무 놀랐어요. 사실 지금도 실감이 잘 나지 않아요. 로저스 님이 작업하신 아티스트 명단을 봤을 때 ‘우리가 벌써 여기 끼어 도 돼?’하며 놀랐다고 털어놨다.”

이에 더해 ‘언포기븐’엔 글로벌 슈퍼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달려라 방탄’을 만든 펠리 페라로(Feli Ferraro), 제이지(Jay-Z)가 설립한 레이블 락 네이션(Roc Nation) 소속 아티스트 벤자민(Benjamin)도 함께 했다.

‘언포기븐’은 르세라핌의 앨범에 꾸준히 참여한 프로듀서 팀 ‘13’이 멤버들인 스코어(SCORE·이관)와 메가톤(Megatone·김병석) 그리고 프로듀서 슈프림보이 등이 주축인 된 노래이기도 하다.

태국 방콕에서 촬영된 ‘언포기븐’ 뮤직비디오는 이국적인 풍광과 헬기, 백마, 클래식카 등 화려한 볼거리가 가득하다. 카우걸 모자를 쓰고 고급 레스토랑에 앉아있던 르세라핌은 타인의 시선 따위는 신경 쓰지 않고 테이블 위로 올라가 화끈한 군무를 펼치면서 뮤직비디오가 시작된다. 활을 쏘는 허윤진, 백마를 타는 김채원, 커다란 날개를 짙는 카즈하, 칼을 뽑고 흔드는 사쿠라, 화려하고 예쁜 케이크를 엉망으로 망치는 흥은채까지. 이 세상의 평가나 시선에 눈치를 보지 않겠다는 메시지와 잘 어울리는 모습들이다.

앨범엔 총 13개 트랙이 실렸다. 기존 6곡에 신곡 7곡이 더해졌다. 신곡 서사의 시작인 일곱 번째 트랙 ‘번 더 브리지(Burn the Bridge)’는 르세라핌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됐음을 알린다. 선택에 대한 확신과 터부를 깨겠다는 결심이다. 김채원이 예전 인터뷰에서 한 “나에 대한 확신이 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라는 말이 곡의 모티브가 됐는데 멤버들은 한국어, 영어, 일본어 등 3개 국어로 내레이션을 펼쳤다.

여덟 번째 트랙인 ‘언포기븐’에서 르세라핌은 “나랑 저 너머 같이 가자 마이 언포기븐 걸스(my unforgiven girls)”라고 노래한다. 아홉 번째 트랙 ‘노-리턴(No-Return)’(Into the unknown)은 모험을 앞둔 설렘에 초점을 맞췄다. ‘이브, 프시케 그리고 푸른 수염의 아내’는 금기를 깨야 비로소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고 노래한다. ‘피어나’(Between you, me and the lamppost)는 르세라핌의 첫 번째 팬송으로 여정을 함께하는 친구, 동료 간의 연대와 유대감을 강조한다. 특히 해당 곡은 멤버 다섯 명 전원이 작사에 참여했고 허윤진이 프로듀서로 이름을 올렸다. 열두 번째 트랙 ‘플래시 포워드(Flash Forward)’는 결말이 뻔히 보인다 해도 망설임 없이 도전하고 빠져들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마지막 트랙 ‘피어 인 더 벨리(Fire in the belly)’에



는 마음에 불꽃을 피우고 모험의 바다로 떠나자는 메시지가 녹아있다. 이처럼 앨범은 전체적으로 모험담의 서사가 압축돼 있다. 서사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혼자 하면 방향이지만 함께하면 모험이 된다”다. 해당 문구는 지난해 10월 공개된 하이브의 네번 째 오리지널 스토리 ‘크림슨 하트(Crimson Heart)’의 프롤로그에 등장하기도 했다. 대세 SF 소설가인 김초엽 작가가 ‘크림슨 하트’의 기본 설정을 바탕으로 본편이 시작되기 전 서막에 해당하는 프롤로그를 통해 본격적인 모험을 앞둔 소녀들의 이야기를 그린 작업에 일부 참여했다. 이는 앨범 마지막 트랙 ‘피어 인 더 벨리’ 속 노랫말인 “너 내 동료가 돼라”와도 연결이 된다.

김채원은 “팬분들이 르세라핌 덕에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 같다”고 이야기 해주는데, 저희도 팬분들 덕분에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 같다”면서 “서로 좋은 영향을 주는 멋진 사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나아가보자’는 메시지를 들려드리고 싶었다”고 말했다.

서사는 고전적이지만, 곡마다 장르를 세련됐다. 네이버웹툰과 손잡은 하이브 오리지널 웹툰·웹소설인 ‘크림슨 하트’의 세 번째 테마

곡인 ‘노-리턴’은 디스코 팝, ‘이브, 프시케 그리고 푸른 수염의 아내’는 저지 클럽, 멤버 허윤진과 싱어송라이터 겸 기타리스트 적재가 프로듀싱에 참여한 ‘피어나’는 컨트리 록, ‘플래시 포워드’는 소셜 미디어 팝, 앨범의 마지막 트랙인 ‘피어 인 더 벨리’는 리듬이 시원한 라틴 팝이다. 북미 시장에서 주요 통하는 장르들이다. 하이브와 소속사 쏘스뮤직이 세계 팝 본고장인 북미 시장의 흐름에 대해 얼마나 공부했고 이를 따라가기 위해 명민하게 연구했는지를 알 수 있다. 지난 앨범 타이틀곡 ‘안티프래질’에 이어 이번 ‘언포기븐’이 스페인 출신의 글로벌 팝스타 로살리아(Rosalía) 노래와 분위기가 비슷하다는 일부 목소리 역시 트렌드를 반영했다는 방증으로 해석할 수 있다. 김채원은 “저희의 곡과 콘셉트는 저희의 이야기·메시지를 담은 ‘고유 창작물’”이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르세라핌이 강조하는 주제는 “금기를 깨다”다. 흥은채는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불공평하다’고 느꼈던 것들이나, 이유는 모르겠지만 남들이 하라고 하는 것을 마주했을 때 이해하기 어려웠던 적이 있었어요. 그걸 깨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그런 부분을 담게 됐다”고 설명했다.

유해진 “모든 순간이 즐거워...자연과 멤버들 케미 전달되길”



배우 유해진이 tvN 예능 ‘텐트 밖은 유럽’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2일 tvN ‘텐트 밖은 유럽’ 측은 유해진과의 서면 인터뷰를 공개했다.

tvN ‘텐트 밖은 유럽-노르웨이’ 오는 11일 첫 방송

유해진은 “스위스-이탈리아 때처럼 즐겁게 보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기분이 좋았다”며 출연하게 된 소감을 밝혔다. 6개월 만에 재회하게 된 멤버들에 대해서는 “6개월이 지났나 싶을 정도로 얼마 전에 본 듯한 느낌”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스위스-이탈리아 편 여정을 마치며 다음에는 북쪽에서 패딩을 입고 만나자고 한다. 이에 유해진은 “노르웨이를 간다고 하니깐 더 기대됐다”며 “장소가 주는 기대감도 크다”고 전했다.

지난 시즌 힘든 점 없었냐는 질문에 10일 동

안 텐트 생활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어렵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어 “멤버들과 함께했기 때문에 모든 순간이 즐거웠다”며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유해진은 관전 포인트에 대해 “사람과 자연이다. 멤버들간의 케미와 자연을 즐길 수 있을 것”이라며 방송을 향한 기대를 전했다.

tvN ‘텐트 밖은 유럽-노르웨이’편은 자유로운 방식으로 유럽을 여행하는 할링 퀘임 예능 프로그램이다. 오는 11일 오후 8시 40분 첫 방송한다.

슈가 ‘디-데이’, 美 ‘빌보드200’ 2위...해금 ‘핫100’ 58위

K팝 솔로 최고순위 타이 기록

글로벌 슈퍼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30·민윤기)가 첫 솔로 앨범 ‘디-데이(D-DAY)’로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차트 ‘빌보드 200’에서 K팝 솔로 가수 최고 성적과 동등한 기록을 세웠다.

1일(현지시간) 빌보드가 홈페이지에 게재한 6일자 차트 예고 기사에 따르면, 슈가가 어거스트 디(Agust D)라는 솔로 활동명으로 지난 달 21일 발매한 ‘디-데이’는 14만장 상당의 판매량으로 ‘빌보드 200’에서 2위로 데뷔했다.

방탄소년단 팀 동료인 지민이 지난달 8일자 ‘빌보드 200’에서 첫 솔로 앨범 ‘페이스(FACE)’로 거둔 성적과 같다.

방탄소년단을 비롯 해당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한 K팝 팀은 다섯 팀인데 슈가와 지민은 K팝 솔로 중 가장 높은 성적을 거뒀다. 그간 해당 차트에서 지민 이전에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한 K팝 솔로는 이들의 팀 동료인 RM이 ‘인디고(Indigo)’로 차지한 3위였다. 방탄소년단

멤버 중 세 명이 ‘빌보드 200’ 톱10을 기록한 셈이다.

트와이스 멤버 나연의 솔로 미니 1집 ‘아이 엠 나연(IM NAYEON)’이 7위로 이들의 뒤를 따르고 있다. 앞서 슈가는 2020년 발매한 믹스 테이프 ‘D-2’로 해당 차트에서 11위를 차지한 적이 있다. 그간 방탄소년단 멤버들은 솔로로 여러 번 ‘빌보드 200’에 진입했다. RM은 ‘인디고’ 외에 2018년 10월 발매한 ‘모노(mono)’로 26위를 차지했다. 제이홉의 첫 솔로 정규 음반 ‘잭 인 더 박스(Jack In The Box)’와 믹스 테이프 ‘호프 월드(Hope World)’가 각각 17위와 38위를 차지했다.

팀으로서 ‘빌보드 200’ 2위를 차지한 K팝 팀도 여럿이다. 슈퍼엠, 블랙핑크, 트와이스다. 이중 슈퍼엠과 블랙핑크는 1위 앨범도 가지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해당 차트에 팀으로서 6개의 앨범을 정상에 올렸다.

‘빌보드 200’ 순위는 전통적인 음반 판매량 점수에 스트리밍 횟수를 음반 판매량으로 환산한 SEA(streaming equivalent albums), 디



지털음원 다운로드 횟수를 음반 판매량으로 환산한 TEA(track equivalent albums)를 합산해 매긴다. ‘디-데이’의 SEA 유닛은 12만5000장, TEA 유닛은 5500장 등이다.



서세원 영면...서동주 “마지막 함께 하는게 도리”

개그맨 서세원(67)이 영면에 들었다. 고인 발인은 2일 오전 8시께 서울 풍납2동 아산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렸다. 개그맨 김학래가 사회를 보고, 엄영수 한국방송공민연합회장이 추모사를 맡았다. 장지는 충북 음성 무지개 추모공원이다.

딸인 변호사 출신 MC 서동주는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했다. 서동주·동우 남매는 모델 출신 전 부인 서정희(61)와 사이에서 낳았다. 서동주는 부모님 이혼 후 고인과 약 8년간 왕래가 없었지만, 비보를 접하고 두 차례 캄보디아를 오가며 장례 절차를 논의했다. 서동주를 포함해 세 자녀와 부인 김모(44)씨, 남동생과 이복 여동생, 외조가 등이 상주로 이름을 올렸다.

영결식에서 김정열은 자신의 트레이드마크인 ‘송구리당당 송당당’ 춤을 추며 고인을 애도했다. 서동주는 이를 보며 눈물을 흘리곤 했다. “딸 서동주다.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하다. 아버지의 마지막을 지켜주셔서 가족을 대표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아빠와 여러가지 일이 있었지만, 마지막 순간만큼은 같이 있는 게 도리라고 생각해 자리를 지켰다. 잘나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 앞으로도 잊지 않고 은혜를 갚으면서 살겠다”고 했다.

서세원은 지난달 20일 오전 11시께 캄보디아 프놈펜 한인병원에서 사망했다. 현지에 임시 빈소를 마련했으며, 사망 8일만인 28일 오후 캄보디아 프놈펜 한 사원에서 화장했다. 열흘 만에 유해를 이송, 장례는 30일부터 사흘간 한국국대연합회장으로 치렀다. 애초 서세원은 링거를 맞다가 심장지가 온 것으로 알려졌지만, 프로포폴을 투약·의료과실 의혹도 제기됐다. 유족은 “현지 경찰로부터 ‘망노병으로 인한 심장지로 사망했다’는 검안 결과가 기재된 사망 증명서를 교부 받았다”면서도 “여러가지 상황상 사망 사유를 쉽게 납득할 수 없었다. 시간이 갈수록 시신을 온전히 보존하기 어렵다고 판단,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현지에서 화장했다”고 밝혔다.

서세원은 1979년 TBC ‘개그콘테스트’로 데뷔했다. MBC TV ‘청춘행진곡’ ‘일요일 일요일 밤에’, KBS 2TV ‘서세원쇼’ 등을 진행했다. 2014년 서정희를 폭행하는 모습이 담긴 CCTV가 공개돼 충격을 줬다. 다음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서정희와 합의이혼했다. 이후 명문대 음대 출신 김씨와 재혼해 딸을 낳았으며, 2019년 12월 캄보디아로 이주했다.